

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

2021.9
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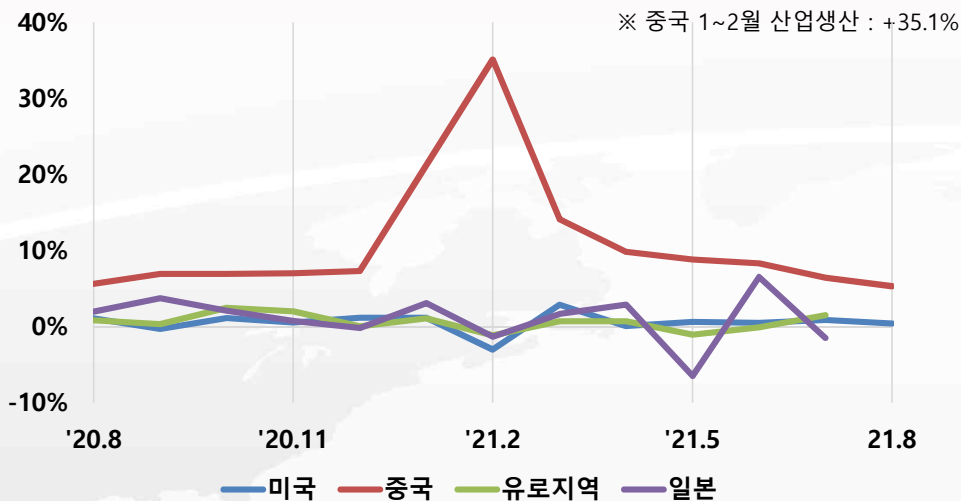


세계 경제동향

■ 주요국 경제동향 : 델타변이 확산으로 경기회복세 전반적으로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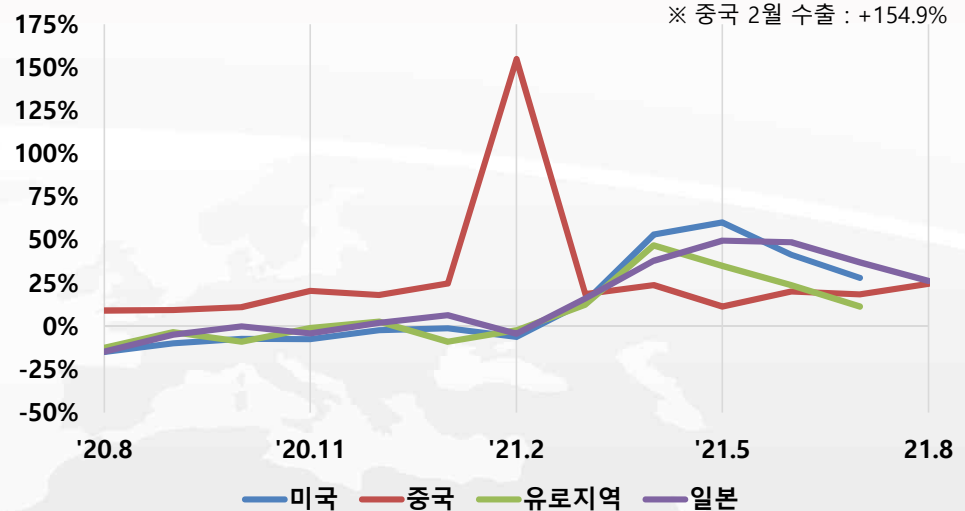
- (미국) 견조한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, 허리케인 및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경기 개선세 둔화
 - 8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+0.4%)은 허리케인에 따른 공장폐쇄 등으로 증가율 하락
 - 8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가폭(전월 대비 +23.5만명) 예상치(+73.3만명) 하회
- (중국) 수출호조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봉쇄 등으로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둔화
 - 8월 산업생산(전년동월 대비 +5.3%) 및 소매 판매(전년동월 대비 +2.5%) 증가율 연중 최저치 기록
- (유로존) 경기지표 혼조세 속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
 - 8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+1.5%)은 증가한 반면, 소매 판매(전월 대비 Δ 2.3%) 감소,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.0% 상승
- (일본) 긴급사태 연장 등으로 소비 회복세 둔화 및 반도체 수급 문제로 산업 생산 감소
 - 7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Δ 1.5%) 2개월 만에 감소세로 반전하고 소매판매(전월 대비 +1.0%) 증가율도 전월(+3.1%) 보다 하락

전산업생산지수



주 : 전월 대비, 계절조정 기준. 중국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 자료 : Bloomberg

수출 추이



주 : 전년동월 대비, 원계열 기준. 중국(USD) 제외 각국 통화 기준
 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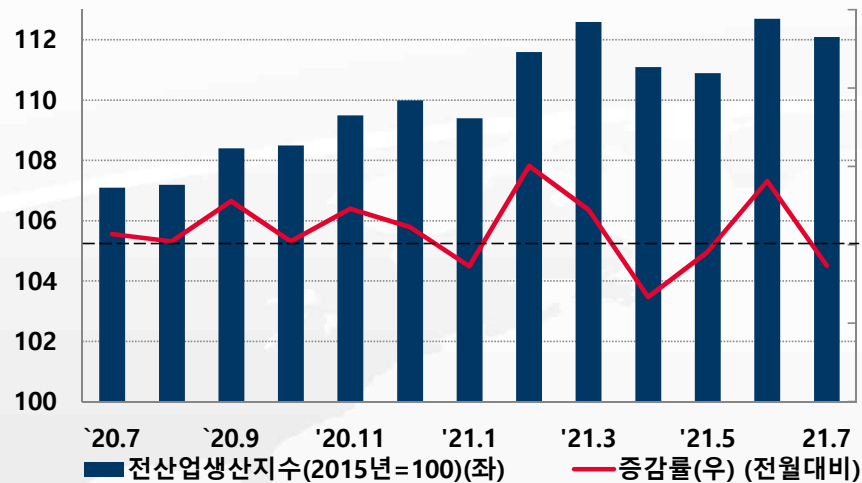
■ 산업 활동 : 산업생산 회복세가 둔화, 정체되는 양상

- (생산)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에서 늘었으나 건설업에서 줄어 전월대비 0.5% 감소(전년동월대비 +4.7%)
 - (광공업 : +0.4%) : 자동차(△3.9%)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, 반도체(+1.6%), 비금속광물(+5.9%)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증가
 - (서비스업 : +0.2%) : 무점포소매 중심으로 도소매업 1.7% 증가,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으로 정보통신업 2.7% 증가
- (경기) 7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102.6p)는 14개월 만에 전월대비 하락(기준치 100)

■ 수출 동향 : 6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8월 최고 수출액 경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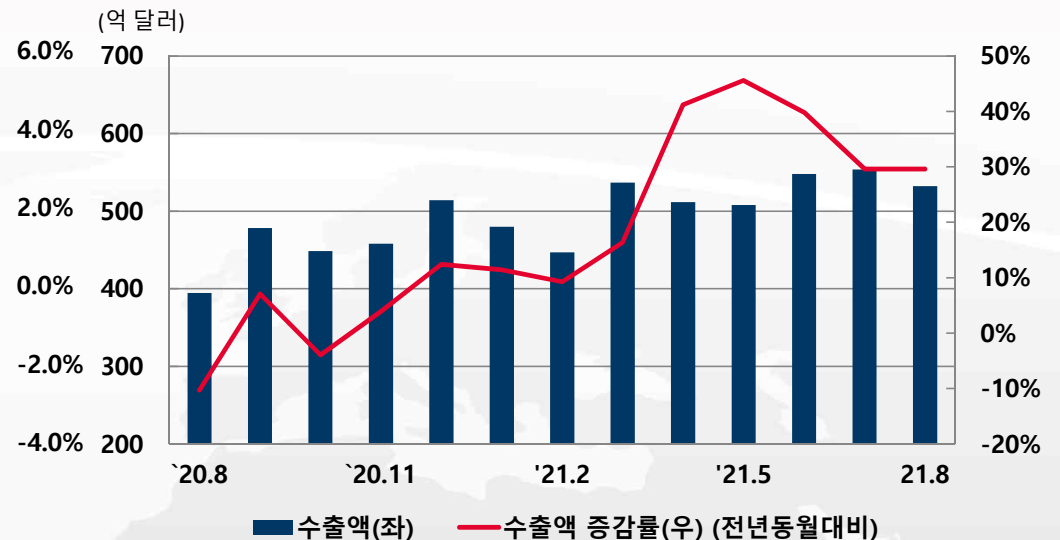
- 8월 총수출은 532.3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34.9%)를 기록, 일평균 수출 증감률(+29%)은 소폭 하락
 - EU(+41.6%), 美(+38.1%), 中(+26.8%) 등 주요국 및 중남미(+73.4%), 인도(+53.5%), 아세안(+27.2%) 등 신시장 모두 선전
 - 반도체(+43.0%)는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, 석유화학(+81.5%)은 유가 상승으로 높은 증가율 기록

전산업생산지수(계절 조정)



자료 : 통계청

수출 추이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통관기준)

국내외 금융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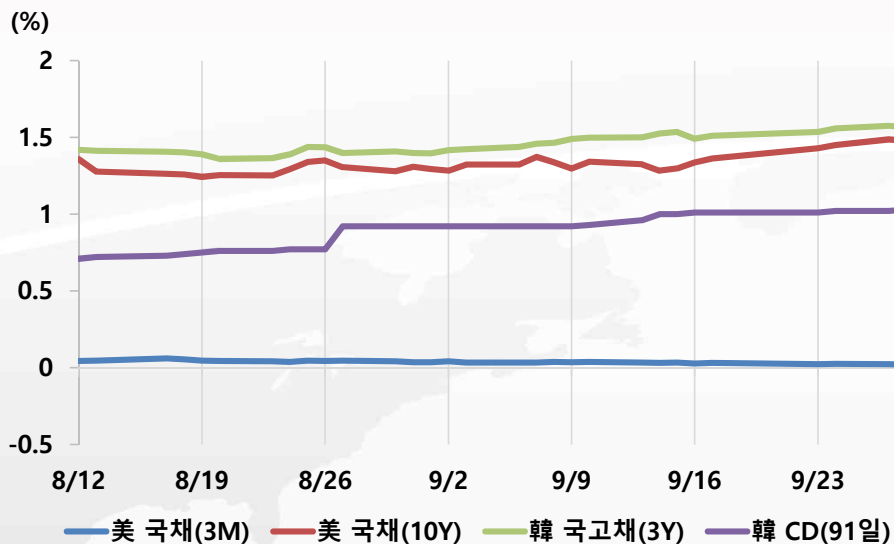
■ 금리 : 미연준의 테이퍼링 의지가 확인되며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세

- (미국) 미국채 금리(10년물)는 경제지표의 혼조세에도 불구하고 미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아지며 월초부터 상승세를 지속하며 1.5%대에 육박
- (한국) 국고채 금리(3년물)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(8.26.)과 부동산 시장 과열 및 소비자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1.57%대로 상승

■ 환율 : 미달러화, 테이퍼링 가능성으로 강세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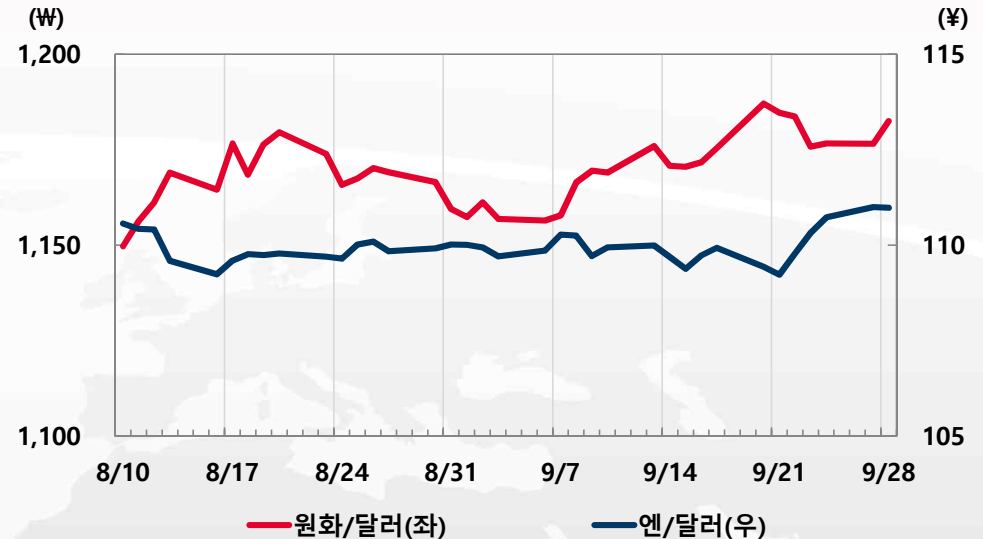
- (원/달러 환율) 경상수지 흑자 유지 및 한은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전망 불투명 및 미달러화의 글로벌 강세로 상승하며 1,190원/달러 수준에 육박
- (엔/달러 환율) 일본 경기회복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세 유지 및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등으로 등락하는 가운데 글로벌 미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 추세를 보임

韓·美 채권 금리 추이



자료 : Bloomberg 및 한국은행

달러 환율(對원화, 對엔화)



자료 : Bloomberg

원유와 천연가스 가격

■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은 미국 허리케인 아이다 영향으로 8월말 이후 대폭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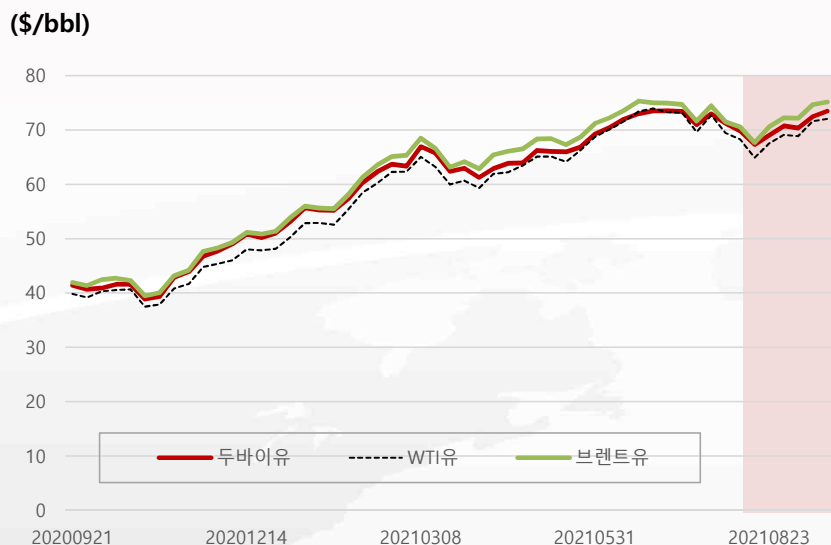
- (원유) 8월 중순 수요회복 둔화 우려로 배럴당 60달러 중반대까지 하락한 이후 미국 허리케인 아이다(Ida)의 영향으로 유가 상승 지속, 9월말 70달러 중반대 기록

- 8월 말 미국 멕시코만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에 따른 멕시코만 원유공급 차질로, 미국 재고가 7주 연속 감소하는 등 타이트한 수급여건으로 유가 상승세 지속 (9.24일, 두바이유 \$74.77/bbl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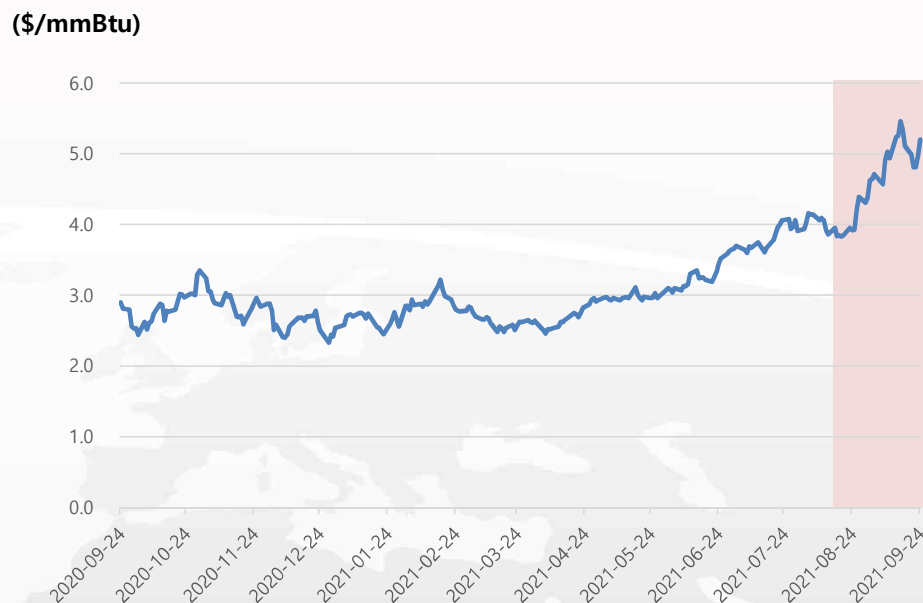
- (천연가스 가격) 미국 허리케인 영향에 따른 걸프만 천연가스 생산차질로 8월말 이후 가격이 급등하여, 9월 중순 mmBtu당 5달러 초반대로 상승

- 9월 세번째 주 미국 천연가스 재고가 전주대비 2.5% 증가(EIA)했음에도, 24일 멕시코만 천연가스 생산량의 24.3%가 섯다운되는 등 생산차질로 가스 가격 급등, 9월 중순 2014년 2월 이후 최고치 기록(9.16일, NYMEX \$5.335/mmBtu)

국제유가 추이



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



자료 : Koreapds(유가는 주간 가격, 천연가스 가격은 NYMEX 익월물 일일가격)

■ 8월 수주, 조선사의 수주물량 조절 등으로 둔화

• 8월 시황은 세계 발주량, 한국 수주량 모두 금년도의 호조를 이어가지 못하고 잠시 주춤한 양상을 보임

- 8월 세계발주량은 전년동월 대비 47.4% 감소한 137만CGT, 8월 누적치는 전년동기 대비 165.1% 증가한 3,239만CGT
- 8월 한국 수주량은 78만CGT(전년동월 대비 +5.2%), 누적치는 1,366만CGT(전년동기 대비 +405.2%)
- 8월 수주액은 21.0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27.8%), 누적 수주액은 341.6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+439.5%)
- 8월 시황은 안정적 수주잔량을 확보한 조선사들이 높은 철강재 가격에 의한 손실 만회를 위하여 본격적인 선가 인상을 시도하여 선주와 협상이 길어지며 계약이 지연된 것이 발주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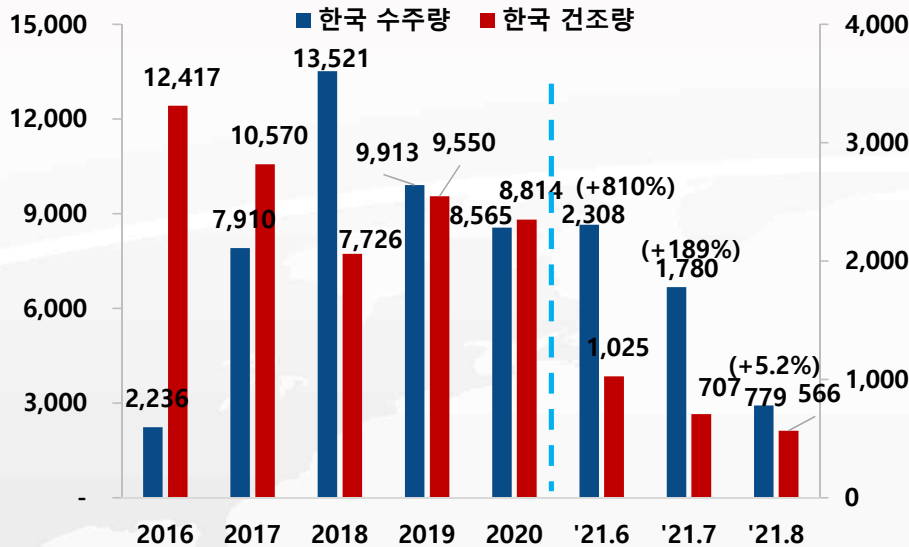
* Clarkson 신조선가 지수 : ('20. 1월) 129.8 → ('20. 6월) 126.9 → ('21. 1월) 127.1 → ('21. 6월) 138.8 → ('21. 8월) 145.8

• 8월 선박 수출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

- 8월 수출액은 16.3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38.5%), 누적 수출액은 154.5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+21.4%)

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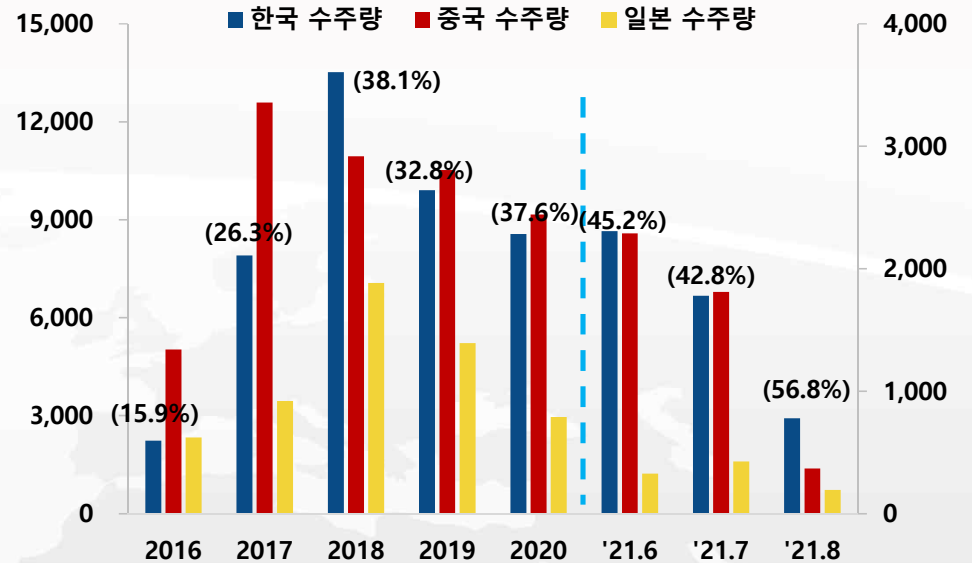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

자료 : Clarkson

한·중·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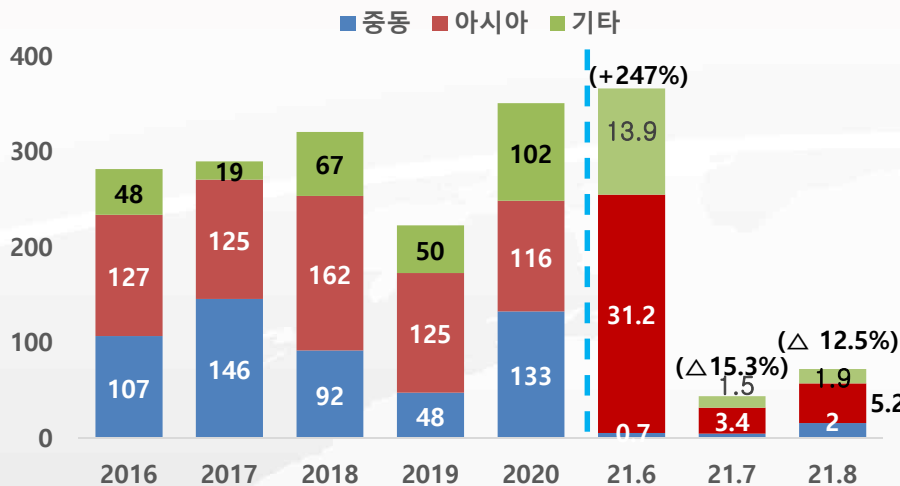
자료 : Clarkson

■ 8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12.5% 감소한 9.1억 달러

- (지역별) 중동 수주는 전년동월 대비 18.8% 감소한 9.1억 달러, 아시아는 5.2억으로 전년동월 대비 13.3% 감소 - 8월까지 지역별 누적 수주액은 중동(43.8억 달러, △45.9%), 아시아(77.1억 달러, △5.1%), 북미(15.4억 달러, +214%) 및 유럽(21.1억 달러, +235%)
- (공종별) 플랜트 5.1억 달러(전년동월대비 +168%), 토목 0.8억 달러(△78.9%), 건축 2.1억 달러(△19.2%) 기록
- 8월은 여름 휴가시즌 등으로 수주 비수기이기 때문에 지역 및 공종 모두에 걸쳐 수주가 부진한 상황
- 2021년 8월까지 누적 수주액은 전년 대비 8.9% 감소한 16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, 전년 대비 수주 감소는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작년 유가 급락 여파가 상반기까지 중동 발주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

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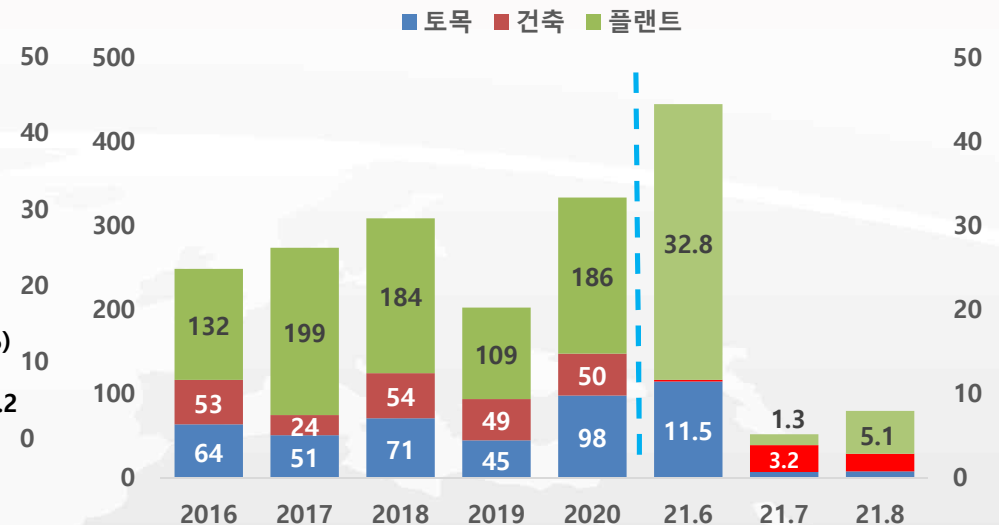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총 수주액 증감률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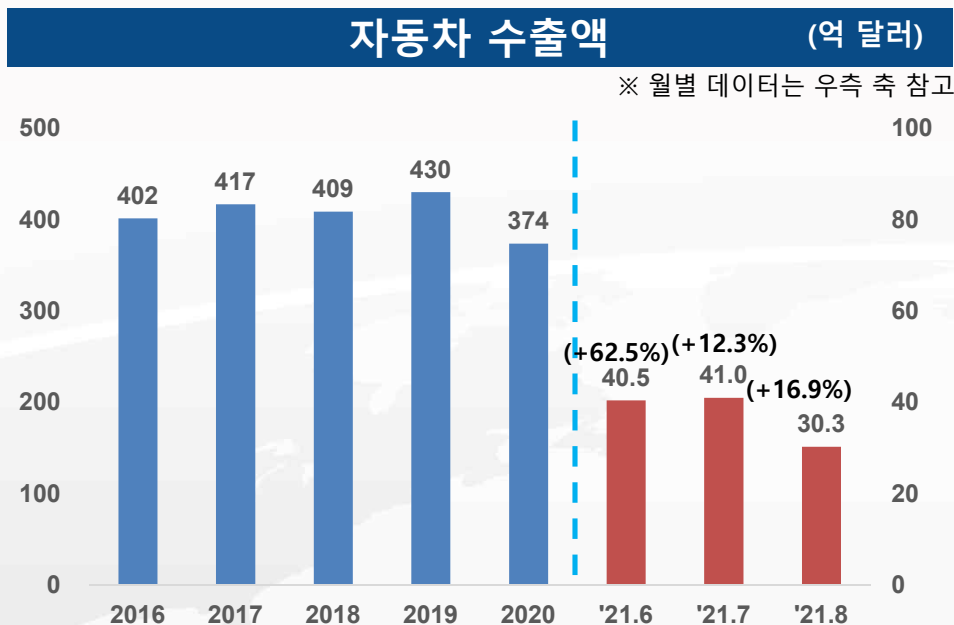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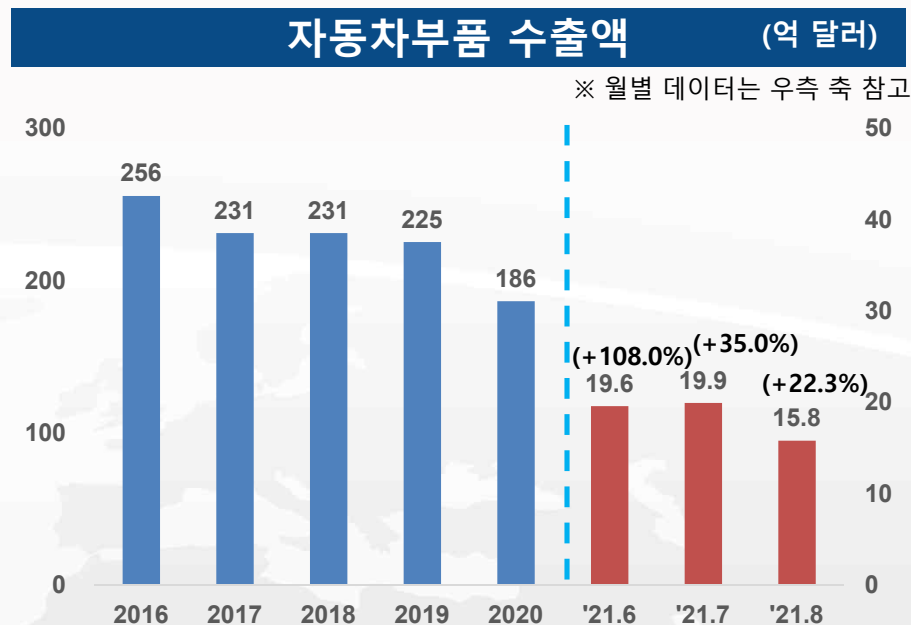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8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각각 30.3억 달러, 15.8억 달러 기록

-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16.9% 증가했으며,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101.2% 증가**
 - 동남아에서의 코로나 19 확산으로 반도체 리스크가 커졌으나 자동차 수출액은 13년 8월(35.7억 달러) 이후 최고치 달성
 -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01.2% 증가한 8.4억 달러로 수출금액의 27.5% 차지
 - * 친환경 자동차 종류별 수출 대수 비율: 전기차(41.0%), 하이브리드(43.1%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(15.7%), 수소차(0.2%)
-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22.3% 증가한 15.8억 달러 기록**
 - 미국, EU, 인도에서 자동차 수요 확대로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10개월 연속 증가
 - * 대륙별로 북미(25.6%), 유럽(22.2%), 아시아(19.9%)의 판매 비중이 높고, 전년동월 대비 각각 17.3%, 14.4%, 31.7% 증가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 자료 : 무역협회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 자료 : 무역협회

반도체·디스플레이

■ 8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 대비 42.2%, 22.4% 증가

•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42.2% 증가한 117.9억 달러로 14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

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견조한 수요, D램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1.2% 증가한 76.7억 달러 기록

* D램 고정거래가격(달러) : ('20.7~9)3.13 → (10~12)2.85 → ('21.1~2)3.0 → (4~6)3.8 → (7~8)4.1 (D램익스체인지)

-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파운드리 수요 증가*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1.2% 증가한 35.6억 달러 기록

* 국내 파운드리: 퀄컴의 AP(Application Processor), 엔비디아의 GPU(Graphic Processing Unit) 등을 수주

* 시스템반도체 수출가격지수(2015=100): ('20.8)81.3 → ('21.1)76.1 → (3)78.1 → (5)83.6 → (6)83.5 → (7)84.0 → (8)84.4 (한국은행)

•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2.4% 증가한 22.1억 달러로 12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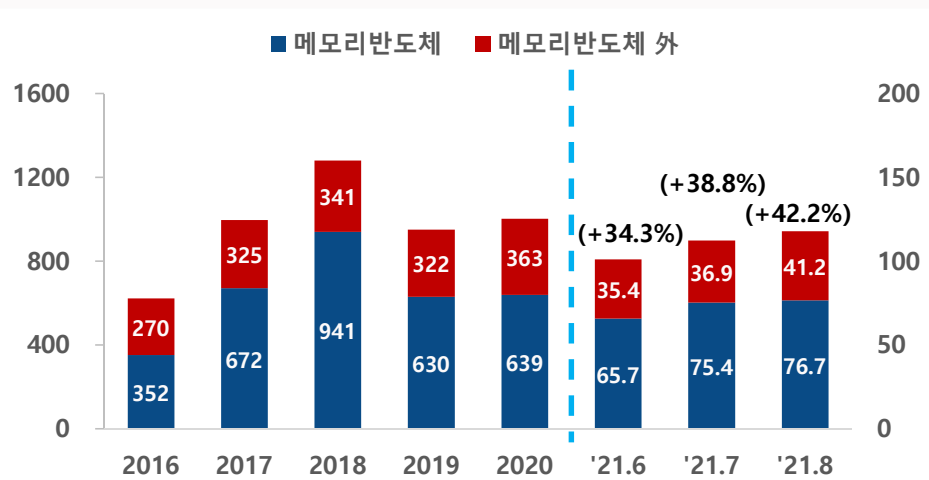
- OLED 수출은 모바일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7.3% 증가한 14.0억 달러 기록

* OLED 수출가격지수(2017.12=100): ('20.8)66.7 → ('21.1)61.7 → (3)54.6 → (5)51.2 → (6)51.1 → (7)52.2 → (8)51.8 (한국은행)

- LCD 수출은 LCD 가격 하락세로 전환, LCD 구조조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7.1% 감소한 4.8억 달러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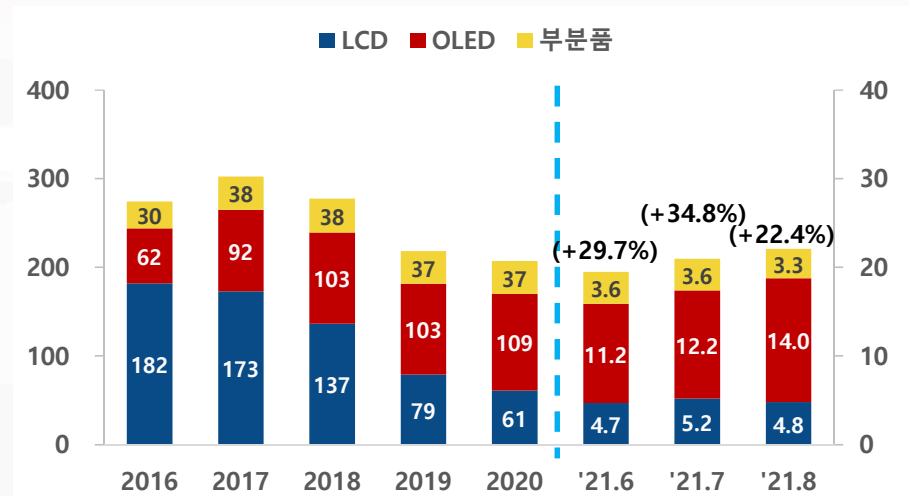
반도체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디스플레이 수출액 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